

## “먹·색·현대미술로 분류한 남도 한국화의 진수 만나세요”

허백련, 허건, 천경자 등 남도를 예향으로 조성한 대표적인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남도 한국화 명작전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가 지난달 13일 시작돼 미술관 5, 6전시실에서 관람객을 맞고 있다.

남도가 예향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한국 남종화의 계승 전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남종화는 불교미술과 함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중요한 미술 분야로 자연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이 자연에 대해 지닌 자연관이 반영된 예술이다.

남도 남종화는 18세기 초 남종화와 풍속화를 그린 윤두서, 조선 말기 사의 지상주의를 표방한 김정희의 제자 허련에 이른다. 허련의 남종화는 이후 아들인 미산 허형에서 의재 허백련과 남농 허건에 이어졌으며 이후 춘설현과 윤림산방을 중심으로 남종화의 전통이 내려온다. 이러한 한국 남종화는 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다양한 형식의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학 교육을 받으며 현대미술을 수용한 뚜렷한 색채와 개성을 지닌 한국화 작가가 등장해 현대적인 감각의 채색을 사용하고 기존의 남종화를 한층 발전시킨 새로운 양식의 작품을 제작한다.

시립미술관, 남도 한국화 명작전  
허백련 손재형 허건 천경자 등  
한국화 원로작가 명작들 선배



박행보 작 '금강산'

이번 ‘마음, 예술가의 혼을 담은 한국화’ 전시는 남도 한국화를 통해 다양한 의미를 지닌 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남도 출신 한국화 1, 2, 3세대 원로 작고 작가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통 남종화 작품,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작품, 현대미술을 적용해 재창조한 작품으로 분류했다.

전시구성은 작품의 내용에 따라 3가지 주제로 나뉘었다. 순수하고 깨끗함을 의미하는 ‘담백함墨(묵)’, 감성적인 색을 넣어 기(氣)를 강조한 ‘아름다움(色)’, 한국화의 다양함을 뜻하는 ‘예술창(창)’이다.

‘담백’은 남종화에 천리를 담은 작품으로 순수성을 표현한 한국화다. 자연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담고자 한 작품으로 이성 절제된 마음으로 깨끗함과 담백함을 나타냈다. 예술에 있어 순수하고 순정한 사유를 기본으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담은 작품들이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보편적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아름다움’은 감성적인 색을 넣어 아름다움과 친근함을 나타낸 한국화다. 한국미술사에 있어 전통적 채색화는 감성적인 색을 넣어 강조한 작품으로 아름다움과 대중적인 따뜻함을 나타냈다. 남도한국화가들은 독창적인 자신만의 화법을 전개, 화려한 색채를 먹과 함께 사용해 개



천경자 작 '접시꽃'

성을 담아냈다.

‘예술’은 먹과 채색의 전통에 현대미술의 조형적 요소를 적용한 작품이다. 남도 한국화의 먹, 채색의 전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을 한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남도 한국화의 새로운 전개를 볼 수 있다.

출품작가는 곽남배, 구철우, 김대원, 김명제,

김옥진, 김재일, 김정현, 김형수, 노경상, 문장호, 박광식, 박은용, 박행보, 변관식, 손재형, 송계일, 신영복, 안동숙, 양계남, 오건규, 윤애근, 윤의중, 이상재, 이종원, 이창주, 장찬홍, 정운면, 조방원, 조복순, 천경자, 하철경, 허건, 허달재, 허대득, 허련, 허림, 허백련, 허의득, 허행면, 허형이다. 최진화 기자

### 김건국 개인전…호텔현대 바이라한 로비갤러리



김건국 작 '남도 노을속으로'

김건국 작가의 10번째 개인전 ‘백결음의 여행-남도 바라보다’가 7월 31일까지 호텔현대 바이라한 로비갤러리에서 열린다. 목포 정체성을 캔버스에 표현하는 김건국 작가의 이번 전시는 남도 주변 갯벌이 주는 감성을 보여준다.

작가는 갯내음이 전하는 포근함과 따스한 저녁노을 아래 시시각각 다르게 펼쳐지는 갯벌의

표정을 세심하게 표현했다. ‘백결음의 여행’이라는 작업실에서 바라본 목포 앞바다의 풍경은 바라볼 때마다 가슴 설레는 고향 항구의 친숙하면서도 변화무쌍한 매력을 그대로 작품에 녹여냈다. 남도의 일상적 풍경을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걸어 바라본 빛과 공간의 느낌을 작품 속에 섬세하게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최진화 기자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종교적 미학’ 선봬다

박그림·지민석 작가 참여  
무속신앙 현대적 재해석

오는 8월 30일 개막되는 2025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 박그림, 지민석 작가가 참여해 종교적 미학이 담긴 작품을 선보인다.

2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박그림, 지민석 작가는 사마니즘, 불교 등 동양의 전통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그림 작가는 불교적 상징과 동시대의 쿼서사를 결합한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성적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그려왔다. 그는 전통 불화 기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종교와 성적 정체성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박 작가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주류와 비주류가 아닌 하나의 세계로 조화를 이루는 순간

을 포착하고 싶다”며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그만의 독특한 미학을 국내외 관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민석 작가는 한국의 전통 철학 및 무속 신앙에 관심을 두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브랜드나 상품을 신격화하는 ‘신중도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이와 관련된 작품세계를 펼친다.

지 작가는 “자본주의의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몸을 갖게 된 신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이 물질과 영혼, 현실과 허구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그림 작가의 작품은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지민석 작 '코카콜라 여신'

# TuiiBot

## 이제 튀김은 튀봇에게 맡기세요

# 1시간당 치킨 36마리

# 튀김로봇

## 직접 체험하고 선택하세요!

**LG전자**  
 공식인증점 (주)태등

# 062-383-5800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

www.lgtd.kr

# 신청